

트위터로 살펴본 2011년 월별뉴스는

(2011.12.30)

2011년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해였다. '아랍의 봄'부터 '월스트리트의 가을'까지 지구촌 곳곳에서 민주화와 반금융자본 시위를 촉발한 SNS는 국내에서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서울시장 선거 등 굵직한 현안마다 이슈를 만들어냈다. 올 한 해 한국인이 트위터 세상에서 공감하고 소통한 얘깃거리는 무엇일까.

SNS분석 전문업체인 코난테크놀로지가 트위터 상에서 올 한 해 동안 한글로 주고 받은 멘션 5억9960만 건을 분석한 결과 연중트위터 소통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휴가철인 8월과 10~11월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월 평균 4997만건씩 오가던 트위터 멘션은 8월 들어 전체의 10.9%인 6549만 건으로 폭증했고, 10월과 11월에도 각각 6309만(10.5%), 6582만 건(11%)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8월엔 휴가(23만1380건)에 이어 8월3일 5집 앨범을 발표한 슈퍼주니어(17만6555건) 관련 멘션이 가장 많았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4만3676건)와 희망버스(1만7333건)도 그 뒤를 이었다.

10월의 공감 키워드는 서울시장 선거로 후보자 등 관련 트위터 멘션이 136만건을 넘어섰다. 11월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이어 한미 FTA가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단일 단어로는 '수능'이 26만6618건 언급돼 상위권을 차지했지만 '한미' 'FTA' '비준' '꿈수' '날치기' '김선동' 등 직간접적인 멘션 등을 합치면 11월의 화두는 단연 한미 FTA였다.

월별 공감 키워드는

- 1월 시크릿가든 구제역 현빈
- 2월 졸업 발렌타인데이 이집트
- 3월 일본대지진 나는가수다
- 4월 이지아서태지 사건
- 5월 나는가수다 어린이날 두산 임태훈
- 6월 반값등록금 최고의사랑
- 7월 평창 방학 휴가
- 8월 휴가 슈퍼주니어 꼬꼬면 희망버스
- 9월 안철수 슈스케 곽노현
- 10월 서울시장선거 한미FTA 슈스케3
- 11월 수능 한미 FTA 뽀빠로데이 나꿈수
- 12월 김정일 디도스공격 최구식 으로 집계됐다.

코난테크놀로지는 자체 개발한 이슈어 추출 모듈을 이용해 특정기간 동안 트위터 멘션에서 인칭대명사(너, 나, 우리 등) 혹은 'ㅋㅋㅋ' 등을 제외하고 출현빈도가 높은 단어를 추출해 통계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대상기간 중 한글로 트위터를 주고 받은 이용자는 모두 350만명이었다.